로컬플러스

군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군산시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에서 신청한 고용노동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시는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업 상태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계안정 도모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공이라는 목표로 추진된다.

참여자격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능력자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생생직업 체험교실' 운영

군산시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생생직업 체험교실'을 내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한다.

생생직업 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직업현장 체험을 통해 장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체험교실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7월 초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 직종(마술사, 의사, 요리사,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로봇과학자)과 연관된 직업 체험터를 방문한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어르신대상 보이스피싱·교통안전교육 실시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27일 관내 노인정·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지구대장은 항상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낯선전화,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칭, 각 종 ARS 전화는 대부분 사기이며, 만약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상대방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 즉시 112나 관한 지구대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당부 했다.

앞으로도 중앙지구대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관내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할 것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내일 장애인공감콘서트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에서 '2016 장애인 공감콘서트'가 '함께 공감하고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이란 주제로 내달 1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군산출신 예술가 박트리오와 소담 김금희 명창을 초청해 장애인 공연팀과의 다양한 협연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과 함께 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는 장애인 작가들의 한국화, 그림, 시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종진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장은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과 동반자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서 더욱 노력해 미래가 있는 군산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콘서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20대 총선 선거사범 늘었다

19대 64명에 비해 9.4%증가… 24명 기소·3명 구속·46명 불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70명을 수사해 24명(구속 3명)을 기소하고 46명을 불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3곳(군산, 익산 갑, 익산을)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제19대 총선사범 64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관내에서 야당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선사범이 그 만큼 증가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특히 제20대 총선 당선자는 모두 2명을 수사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범죄 유형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0명(52.6%)으로 가장 많고, 불법선전 13명(17.1%), 금품선거 12명(15.8%), 기타 10명(13.2%), 여론조작사범 1명(1.3%) 등이다.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에는 익산시정 보궐선거사범 유형도 포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개했다.

제19대 총선 당시에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각각 2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2명(18.7%), 불법선전 2명(3.1%)등이었다.

따라서 제20대 총선의 경우 제19대 때와 비교하면 금전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한 셈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품선거사범의 감소는 금전선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정확한 양형기준 적용 등 엄정대처로 인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흑색선전사범은 관내 정치 구도 변화 등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고소와 고발 증가, 인터넷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등에 따른 사이버 선거범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례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A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과거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6명을 수사해 4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2명을 불기소했으며, 익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시장 상인 등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 매수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천만송이 국화 향기에 취해보세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

오색국화의 대향연인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난 28일 오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소병홍 시의장, 황현 도의원, 박종길 익산시재정향우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익산 대표 빵인 '익산팡' 출시 기념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사)대한제과협회익산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소병홍 시의장, 관람객 등이 참석해 케익 커팅을 하고 익산팡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익산시는 (사)대한제과협회익산시지부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빵인 익산팡을 개발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에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관광 상품으로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주제로 오는 11월 6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화축제는 12만점의 국화로 연출된 황금쌍용, 행복의 새 봉황, 쌍마,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국보급 문화재인 미륵사지석탑, 왕궁리5층석탑, 사리장엄과 백제왕도문 등의 화려한 국화작품이 축제장을 가득 메운다.

다륜대작, 현애, 분재, 입국 등 1,000여점의 예술국화들이 전시되는 국화축제 특별 실내 전시관과 다양한 시민참여공연, 천만국화 시민노래자랑, 시립예술단 공연 및 새만금상설공연 아리, CBS 공개방송(낭만가객), ECO 융합섬유연구원의 한지섬유패션쇼, 시식 홍보행사 등 다양한 공연과 국화체험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13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는 가을 대표 꽃인 국화의 아름다움과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최고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세계유산도시 익산에서 향긋한 국화 향기를 맡으며 가을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각종 축제에 관광객 몰려

지난 9월부터 문화관광상품 출시 등 외래관광객 유치에 총력

제1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보석대축제, 블링블링주얼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국내 굴지의 여행사들과 손을 잡고, 축제프로그램을 연계한 익산문화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여행사 홈페이지는 물론 주요 일간지,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오픈 마켓에서 익산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축제홍보 및 익산문화 관광홍보를 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렸다.

그 결과 이번 축제 기간에 롯데관광, 여행스케치, 여행공방, 와인시네마트레인 등 수도권여행사와 함께 약 50회, 1920여명 정도 관광객을 확보해 익산관광을 실시한다.

관광객들은 국화축제장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보석축제장, 먹거리, 쇼핑 등을 하며 익산을 투어 한다. 국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찬란한 보석의 향연이 펼쳐지는 보석박물관과 주얼팰리스 쇼핑을 통하여, 눈과 마음과 입이 즐거운 오감만족 여행을 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익산여행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한 관광안내와 문화관광해설 지원, 맛 집, 숙박 등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농어촌공사익산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지난 28일 운영대의원, 농업인단체, 쌀전업농, 유지관리 업무종사자, 농업기술센터장, 내고향지킴이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1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농업인 유대 및 협력채널 강화를 통한 교류활성화, 농어민 고객관리를 통한 수자원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최 되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용수 전문화 방안, 저수지 수질개선 특별대책 등 대내외 수자원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용수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운영 현황 등이 보고됐다.

또한, '내고향 물해설가'(전주완주임실지사 성치문 차장)가 참여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물과 수리시설을 활용, 지역의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농어촌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선호 익산지사장은 설명회를 계기로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지사로 거듭나기를 다짐하였으며, 지역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는 익산지사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소통 간담회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허심탄회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13개 부서(14개 사업)에서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시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예(18)양은 "보석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뉴딜일자리 참여로 보석박물관에서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보석의 종류를 많이 알게 되었다"며 "도슨트 업무를 통해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보석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들으며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진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에서 근무 중인 이신애(25)씨는 "뮤레이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었는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로 고향 익산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고민이 해결되었다"며 "아주 기초적인 전시장 관리부터 시설 전시 등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몇몇 참여자들은 전문 인력으로 경력을 쌓기에 4개월은 부족하고,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기회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뉴딜일자리를 확대해 시민들에게는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민간일자리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재난대비 모의 훈련 실시

푸른 경광등이 울리며 엠블런스에 실린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사고 발생 통보를 받고 임시 진료소와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진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주차장에는 재난진료시스템 가동에 따라 집결된 요원들에 의해 후송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사망, 수술 귀가자 정리까지 맡은 임무들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현장이 움직인다.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원광대학교병원응급의료센터 앞 주차장에서 열린 2016 재난대비 모의 훈련 전경이다.

원광대병원이 국가적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상황 및 다중이용 시설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시 역할 분담과 현장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체계적인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2016 재난대비 모의 훈련을 가졌다.

재난대비 모의 훈련은 익산시 동서로 익산 000전당 화재사고로 건물 붕괴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총40여명의 응급환자 중 30여명이 후송되어진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실시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매년 지역사회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 다중이용시설 붕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재난 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장에 위촉되는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모의 훈련을 통한 대비 훈련은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경황이 없는 재난 상황 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초기 응급처치는 소중한 생명들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대비 모의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삼국통일 백강전투 재조명

군산 향토사 재정립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전북개발연구소가 주최하고 군산시와 전북도가 후원하는 군산 향토사 재정립 프로젝트 '삼국통일 백강전투 재조명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 30부터 오후 6시까지 한원컨벤션(옛 궁전웨딩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백강전투'는 삼국통일과 연계된 한국고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며, 군산의 금강은 백강전투의 현장으로 학술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금강하구 및 군산포를 중심으로 한 백강전투의 국제적 의의 및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검토를 밀도 있게 담아내게 된다.

이날 '한반도와 기벌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는 박영철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해양력이 돌출한 시기로 삼국의 통일에서 고려왕조 시기임을 밝히고, 특히 이 시기의 금강하구 지역이 삼국통일을 완수하는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바이건싱 중국섬서사범대학 교수는 '나당연합과 백강구전투'라는 주제를 통해 이 전투에 참전한 각 나라의 지휘관들, 교전한 쌍방의 역량비교, 백강구에서의 전투 등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김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장은 '당나라군(軍)의 백제 침략 과정 기벌포(백강) 위치 고증 연구'를 주제 발표로 정하고, 삼국통일전쟁의 중요 전투 장소였던 곳이 금강하구의 군산지역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고미야 히데타카 계명대학교 교수는 '일본 견당사 파견과 백촌강 전투'를 역사적 고증과 함께 설명하게 된다.

각 주제 발표 후에는 이진원 군산문화원장과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김영관 충북대학교 교수, 김은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열리게 되며, 종합토론에서는 백강전투에 대한 지리적, 학술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